



## 정부는 청년인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10.14일 한국경제신문 「“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세요”... 세금으로 월급 뿌렸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 -

- 한국경제신문(‘24.10.14)에서 안도걸 의원실이 정부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일부 인터뷰를 바탕으로 ①근무기간中 퇴사\* ②공직사회 실무경험 실효성 의문 ③채용·배치\*\* 허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.

\* (‘23년 전체) 국토부(30%)-해수부(29.9%)-중기부(25.8%)-국방부(25%) 順  
(‘24년 상반기) 2,220명중 327명(14.7%)

\*\* (교육부) 260명 채용중 본부 2명외 국립대 할당, (기재부) 인턴채용 2개월 미만

- 정부에서는 ‘23년 청년인턴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
### 1. 근무기간 중도퇴직 관련

- 정부 청년인턴 운영과정에서 근무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퇴사하는 사례가 많으며, 중도퇴사에 따른 추가채용을 통해 새로운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\* 국토부의 경우 보도기사의 25명(‘23년) 중 64%가 취업사유 퇴사인 것으로 조사

- 청년인턴 제도는 채용환경 변화로 청년의 일경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공공부문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.

\* 공채 폐지 및 수시·경력 채용 확대, 직무역량 중심 채용 뚜렷

- 일경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,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근무기간 중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.

\* 취업목적 면접 및 각종시험 특별휴가로 보장(전부처 청년인턴 운영가이드라인)

## 2. 직무역량 강화 실효성 관련

- 정부는 청년인턴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부처 공통 운영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부처별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('24.1)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
  - 채용계획에 따라 고유업무를 경험하면서 부처별로 특정 프로젝트를 기획·실행하거나 정책연구 및 제안 등 다양한 참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 

▶ 프로젝트 : (총리실) 청년정책 레드팀 운영, (산업부)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운영  
 ▶ 정책제안 : (국토부) 청년인턴 국토교통정책 경진대회, (기상청) 날씨알리미 앱 개선 참여  
 ▶ 홍보활동 : (환경부) 청년인턴 홍보콘텐츠 제작, (조달청) '조달맨 위드 청년인턴' 활동
  - 이에 따라 청년인턴들은 행정분야 뿐 아니라 청년의 관심이 높은 국제·홍보·문화 등에서 실무 역량을 발휘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.
    - \* 청년인턴 소식지 및 부처별 운영사례 등을 통해 참고하도록 전부처에 공유중
  - 항공·해양·통계 등 부처별 전문분야 경험을 통해 관련분야 기업 및 공직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
  - 또한, 지정멘토제를 통해 청년인턴의 생활적응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- '23년 제도 도입 이후 부처 및 청년인턴 대상 소통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청년인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.
    - \* ('23년) "만족한다" 91.7% 및 "직무역량 도움된다" 90.1% ('23.12, 행정硏)
    - ('24년) "청년인턴 경험이 일경험 성장에 기여했다" 78.2% ('24.9, 청소년硏)

## 3. 채용·배치 등 관리 허술 관련

- 정부는 수도권이나 세종·대전 등 충청권 외 지역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방청 및 부처별 소속기관·대학 등에도 청년인턴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있습니다.
  - 또한, 다양한 인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'24년부터는 2~3개월 단기형을 도입·운영 중이므로 2개월 미만 근무 기간을 채용·배치에 있어서 허술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
    - \* 취업 준비기간 및 대학 재학생 방학기간 등 활용 인턴활동 가능

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무조정실   | 책임자 | 과 장 | 김민성 (044-200-6323) |
|       | 청년정책조정실 | 담당자 | 사무관 | 곽상희 (044-200-6347) |